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015, Vol. 34, No. 2, 353-374

개인주의-집단주의와 자기개방이 가족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온・오프라인 교류비교*

남 순 현 | 권 정 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대인관계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가족의사소통체계에 대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인주의-집단주의와 자기개방이 가족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족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의사소통체계를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전국비례할당표본과 임의표본을 통해서 표집된 SNS를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10대에서 30대까지 1,697명이었다. 연구결과, 온라인 가족의사소통체계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는 온라인 가족접촉빈도와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었고, 수직적 집단주의는 온라인 가족접촉빈도와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 온라인 자기개방은 A영역(가까운 대상)에서만 온라인 가족접촉빈도와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고, 온라인 가족접촉빈도는 가족관계의 질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반면에 오프라인 가족의사소통에서는 수직적 집단주의만이 오프라인 가족접촉빈도와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고, 오프라인 자기개방의 모든 영역은 오프라인 가족접촉빈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프라인 가족접촉빈도는 가족관계의 질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개인의 문화적 가치와 온라인 자기개방은 온라인 가족접촉빈도를 매개로 가족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온라인 자기개방 C영역(단순 지인)과 오프라인 자기개방 A, B, C영역은 모두 가족관계의 질과 직접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점차 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넘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활발한 온라인 자기개방이 온라인 가족접촉빈도를 촉진시킴으로써 가족관계의 질을 증진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점차 가족의사소통의 패러다임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수직-수평적 개인주의 / 집단주의, 자기개방, 온라인 가족의사소통, 가족관계의 질, 가족교류

---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30-B00240).

† 교신저자: 권정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1
Tel: 02-3290-2067, E-mail: junghye@korea.ac.kr

www.kci.go.kr

최근 50, 60대 중고령층의 활발한 인터넷 이용은 온라인 공간이 더 이상 젊은 세대의 점유물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임재명 외, 2013). 온라인 이용에서 연령대 변화와 온라인 가족교류(42.6%,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의 활성화는 50, 60대 부모와 30대 이하 자녀간의 온라인 교류가 접촉의 편리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활발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SNS가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고 많은 연구자들이 온라인 대인관계에 관심을 모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가족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한국문화는 집단주의로 대변된다. Triandis(1995)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서구와 달리 집단주의적인 경향이 강하다고 하였다. 이는 한국 문화가 개인의 개성, 자율, 독립을 강조하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타인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관계성을 중시여기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집단이 바로 가족이다. 전 세계 인구의 70% 이상이 집단주의 문화권에 살고 있고(Bell, 1987, 송성자, 1997 재인용), 가족주의에 입각해서 한국의 전통적 가족구조를 대표적인 수직적 집단주의 집단으로 상정하고 있지만, 현대사회의 변화하고 있는 가족구조와 문화적 가치 속에서 이는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가족구조와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는 가족이 소속되어 있는 문화집단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다. 최근 일부에서는 개인주의적 태도가 집단주의적 문화가치를 말살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Peetze, 2010), 다양한 문화 분류체계 중에서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 분류는 문화권이 다른 사회 및 그 성원들이 보이는 다양한 가치관, 사회적 지각, 정서, 동기, 관습, 제도 등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핵심 틀(조긍호, 1996)로 사용되어 왔다.

Hofstede(1991)는 개인주의란 개인 간의 구속력이 느슨한 사회, 개인이 자신과 가족만 돌보면 되는 사회, 집단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이 우선되는 사회라고 정의하였다. 반면 집단주의란 태어나면서부터 단결과 내집단 통합을 강요받고, 평생 무조건 내집단에 충성한 대가로 보호받는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로 정의하였다. Singelis, Triandis, Bhawuk와 Gelfand(1995)는 동일한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 속에서도 사람들 간의 평등이나 경쟁의 정도가 다름을 강조하면서,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 분류에 수직성과 수평성의 개념을 추가하였다. 이후 Triandis와 Gelfand(1998)에 의해서 분류된, 수직적 개인주의는 각 개인의 자율적 자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개개인을 서로 다른 존재로 인식하여 불평등을 인정하고 경쟁을 강조한다. 수평적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율적 자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모든 개인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가정하는 평등적 관점을 취한다. 수직적 집단주의는 개인을 집단의 일부로 간주하고 집단 속 개인의 차이와 서열을 인정하며 집단 내 불평등 속에서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한다. 수평적 집단주의는 개인을 집단의 일부로 간주하지만, 모든 개인은 평등하다는 관점 하에 공동체 목표를 강조하며 개인 간 지위격차나 위계를 중시하지 않는다.

최근 많은 연구들은 젊은 세대에게서 집단주의적 가치보다 개인주의적 가치가 더 팽배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Park, Twenge, & Greenfield, 2014). 세대 간 코호트집단을 분석한 결과, 젊은 사람일수록 자

www.kci.go.kr

기주장이 강하고(Twenge, 2001a), 외향적이며(Twenge, 2001b), 비현실적인 기대감이 높으며(Reynolds, Stewart, MacDonald, & Sischo, 2006),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것(Twenge, 2006)으로 나타났다. 이런 젊은이들의 개인주의적 사고는 성취와 경쟁을 강조하는 사회풍토에 적응하기 위해 사회화된 문화적 산물이다(Uhls & Greenfield, 2011).

이에 대해 남순현(2008)은 현재 우리 사회는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변모하고 있으며, 뿌리깊이 내려온 위계적 서열 속에서 개인은 문화정체감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의 문화적 가치변화는 어떤 측면에서 가족관계와 사회적 연대감을 약화시키게 마련이다(Twenge, Campbell, & Freeman, 2012).

사회문화적 가치 변화가 그대로 침투되는 곳이 바로 가족이다. 한 사회의 사회문화적 가치는 가족원들 간의 의사소통체계를 통해 다양한 가족구조와 가족관계의 형태로 투영된다. Quek과 Fitzpatrick(2013)은 문화 간 부부관계 만족도를 비교해본 결과, 일본 부부는 시댁과의 관계, 미국 부부는 가사분담, 볼리비아 부부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만큼 특정 사회의 문화적 영향은 가족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문화 간 차이를 보인다. Raval(2013)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은 가족관계에서도 자신의 권리, 정당성, 자신의 존엄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은 어른을 공경하고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여 자신의 주장을 삼가면서 가족 내 조화를 이루려고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런 문화 간 차이는 오프라인 관계에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영향을 구분하기 위해 설명된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재고해보아야 한다.

동일한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 속에서도 사람들 간의 평등이나 경쟁의 정도는 다르다(Singelis, Triandis, Bhawuk, & Gelfand, 1995).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연령집단별로 살펴본 장수지, 김수영과 Erika Kobayashi(2014)의 연구에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오프라인 대인관계에서 집단주의적 경향이 강하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인간관계를 가상공간으로 옮겨오거나 가상공간에서 새롭게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이는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대인관계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한국의 가족 간 오프라인과 온라인교류를 집단주의로 단정짓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열성이 존재하는 한국의 가족문화 속에서 오프라인 가족의사소통은 여전히 집단주의적인 문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며,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수평성이 강조되는 온라인 가족의사소통에서는 개인주의적 문화가치가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견해볼 수 있다.

문화적 가치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문화 간 차이를 보고하고 있다. Marshall(2008)은 서구에서는 개인주의적 문화가치를 지닌 집단이 집단주의적 문화가치를 지닌 집단보다 관계만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친밀감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반면, 구재선과 김의철(2006)은 집단주의는 친구나 부모와의 관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특히, 외집단보다 내집단 경향이 강한 한국인의 우리 의식(남순현, 2012)은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부모와의 접촉이

www.kci.go.kr

나 유대관계를 지속시켜왔던 것이 사실이다.

가족은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으며(한주리, 허경호, 2005), 가족원들 간의 상호접촉이 많을수록 가족관계의 질이 높다(남순현, 2001). 따라서 명료하게 의사소통을 잘 하는 가족일수록 가족관계의 질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Satir, Gomori, & Gerber, 2006). 하지만 한국 가족의 접촉빈도와 가족관계의 질을 촉진시키는 이유를 단지 집단주의적 문화가치로 한정지어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국의 가족구조는 최근 변화하는 문화적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족의 의사소통체계는 가족친밀감에 영향에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Hamamura(2011), Park 등(2014), Yamawaki(2012)와 남순현(2008)의 연구에서도 사회문화적 가치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의 변화를 시사하였다.

온라인에서의 집단주의 경향이 자기개방을 증진시킨다는 보고(Posey, Lowry, Roberts, Ellis, 2010)가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받으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Livingstone, 2006)에는 문화 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 연령층이 인터넷으로 대인관계를 확장해나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의 고유한 집단주의 경향이 가족관계 의사소통체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대인관계 변화를 집단주의로 개념화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재고해보아야 할 것이다.

현대 가족은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가족의 해체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박용분(2002)은 가족 간의 자기개방은 긍정적인 가족의사소통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자기개방이 가족관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족의사소통을 촉진시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가족관계에서 가족원들 간의 자기개방은 가족친밀감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한다(Gilbert, 1976). 의사소통과정으로서 자기개방은 가족원들과의 자기개방을 촉진시키기 마련이고, 가족접촉의 기회를 높여 가족관계의 질을 증진시킨다. 자녀의 자기개방은 자녀가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해 부모에게 자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Stattin & Kerr, 2000), 부모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err & Stattin, 2003; Kerr et al., 2010; Salafia et al., 2009).

한편 온라인과 오프라인 대인관계에서 자기개방에 대한 연구들(김교현, 태관식, 2001; Omarzu, 2000)은 친교관계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자기개방수준이 친밀감에 미치는 차이를 보고하고 있다. 오프라인 대인관계에서 자기노출은 사회규범과 관계발전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될 때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반면, 온라인 대인관계에서 정서교류 이전의 자기개방은 친밀한 관계로의 발전에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한다는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친밀도에 따른 타인과의 자기개방수준이 실제로 가족관계에서 의사소통을 촉진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변화하는 문화적 가치와 대인관계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친밀도에 따른 타인과의 자기개방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족접촉빈도와 가족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봄으로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가족교류의 변화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 개인

www.kci.go.kr

의 성격적 측면에서 대인관계에서의 자기개방 성향 두 요소가 가족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둘째, 가족친밀감으로서 가족접촉빈도와 가족관계의 질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개인의 문화적 가치와 성격특성이 가족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칠 때 가족접촉빈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봄으로써, 변화하는 가족의사소통체계의 패러다임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연구가설 모형 및 가설

본 연구의 연구가설모형은 그림 1과 같고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족접촉빈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즉, 개인주의는 온라인 가족접촉빈도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일 것이고, 집단주의는 온라인 가족접촉빈도와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이며, 오프라인 가족접촉빈도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일 것이다.

가설 2. 온라인과 오프라인 대인관계 자기개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족접촉빈도와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족접촉빈도는 가족관계의 질과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개인주의-집단주의와 가족관계의 질 간의 관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족접촉빈도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가설 5. 온라인과 오프라인 대인관계 자기개방과 가족관계의 질 간의 관계는 가족접촉빈도에 의해 매개될 것이다.

연구방법

연구대상과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SNS를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10대에서 30대 1,697명이다. 10대는 서울지역 2개교, 전라도지역 1개교, 충청도지역 1개교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임의표본 표집을 실시한 693명(남자 334명, 여자 342명, 무응답 17명)으로 교사들의 협조를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20대와 30대는 2010년 통계청 인구조사 표본틀에 기초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지역을 지역별X연령별X성별로 전국비례할당표본표집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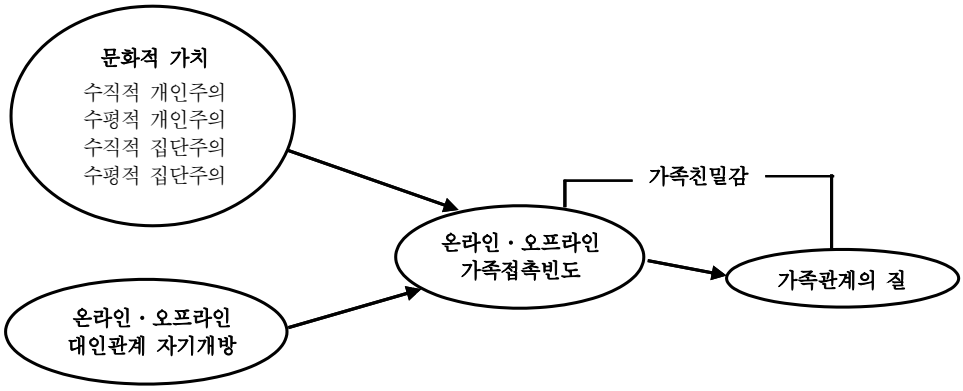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가설 모형

www.kci.go.kr

한 20대 590명(남자 256명, 여자 332명, 무응답 2명), 30대 414명(남자 194명, 여자 217명, 무응답 3명)이다. 설문은 각 지역 대학교수의 협조하에 이루어졌으며, 대학생이 조사원이 되어 연구목적을 숙지한 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1,200부의 설문지가 수합되었으나, 미응답 문항이 많거나 편포되게 왜곡반응을 보이는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004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의 조사기간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였고, 모든 설문은 연구대상자의 연구참여 동의서 작성 이후에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온라인 가족접촉비율(연구대상자가 지각하는 가족과의 온라인 접촉비중)은 10대 평균 15.02%(SD=23.02), 20대 평균 19.15%(SD=24.31), 30대 평균 20.23%(SD=23.90)이었고, 오프라인 가족접촉비율(연구대상자가 지각하는 가족과의 오프라인 접촉비중)은 10대 평균 84.36%(SD=27.31), 20대 80.29% (SD=25.04), 30대 평균 77.84% (SD=26.00)였다. 연구대상자의 인터넷 사용기간(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한 기간)은 10대의 경우 5-7년이 158명(22.8%), 7년 이상이 458명(66.1%)이었고, 20대와 30대의 경우 7년 이상이 각각 544명(92.2%), 386명(93.2%)이었다. 인터넷 사용빈도는 10대의 경우 하루 중 수시로 127명(18.3%), 하루 1회 이상 259명(37.4%), 2-3일 1회 이상 171명(24.7%), 1주일 1회 이상 114명(16.5%)이었지만, 20대와 30대의 경우는 수시로 각각 384명(65.1%), 273명(65.9%), 하루 1회 이상 각각 161명(27.3%), 91명(22.0%)으로 편중되어 나타났다.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10-30대 모두 1-3시간 정도가 각각 391명(56.4%), 285명(48.3%), 169명(40.8%)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개인주의-집단주의

개인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Singelis, Triandis, Bhawuk과 Gelfand(1995)가 개발한 IND-COL(Individualism Collectivism Scale)척도를 김기범(1996)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총 32문항을 사용하였다. IND-COL척도는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을 다시 수직/수평으로 나누어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본 척도는 수직적 개인주의를 묻는 8개 문항(예, '어느 경쟁에서나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일을 잘 하지 못한다면 기분이 언짢다'), 수평적 개인주의를 묻는 8개 문항(예, '나는 내가 하나의 인격체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긴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믿는다'), 수직적 집단주의를 묻는 8개 문항(예, '나는 가족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다'), 수평적 집단주의를 묻는 8개 문항(예, '내 친구들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척도는 리커트식 5점 척도로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수직적 개인주의에서 Cronbach's α=.77, 수평적 개인주의에서 Cronbach's α=.81, 수직적 집단주의에서 Cronbach's α=.77, 수평적 집단주의에서 Cronbach's α=.80이었다.

자기개방

온·오프라인에서 타인과의 자기개방을 측정하기 위해서 Peter와 Valkenburg(2006)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지각 중 지각된 관심 폭(perceived breadth)과 인터넷 관계의 깊이(depth

www.kci.go.kr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징

변인	연령대	10대 (693명)	20대 (590명)	30대 (414명)	전체 (1,697명)
성별	남자	334명(48.2%)	256명(43.4%)	194명(46.9%)	1,680명(97.2%) 무응답 17명(2.8%)
	여자	342명(49.4%)	332명(56.3%)	217명(52.4%)	
거주지	서울특별시	192명(27.7%)	114명(19.3%)	123명(29.7%)	1,697명(100%)
	경기도	-	186명(31.5%)	96명(23.1%)	
	강원도	-	13명(2.2%)	10명(2.4%)	
	충청도	131명(18.9%)	33명(5.6%)	34명(8.3%)	
	전라도	370명(53.4%)	46명(7.8%)	36명(8.7%)	
	경상도	-	198명(33.6%)	115명(27.8%)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173명(25.1%)	-	-	1,674명(99.5%) 무응답 3명(0.5%)
	중학교 졸업	510명(74.9%)	-	1명(0.2%)	
	고등학교 졸업	-	488명(82.8%)	24명(5.8%)	
	대학교 졸업	-	100명(16.9%)	224명(54.1%)	
	대학원 졸업 이상	-	-	164명(39.6%)	
경제수준	상	8명(1.2%)	6명(1.0%)	7명(1.7%)	1,692명(99.2%) 무응답 5명(0.8%)
	중상	139명(20.1%)	72명(12.2%)	47명(11.4%)	
	중	392명(56.6%)	318명(53.9%)	225명(54.3%)	
	중하	120명(17.3%)	163명(27.6%)	106명(25.6%)	
	하	30명(4.3%)	30명(5.1%)	29명(7.0%)	
직업	학생	693명(100%)	488명(82.8%)	46명(11.1%)	1,661명(93.6%) 무응답 36명(6.4%)
	전문직	-	79명(13.4%)	152명(36.7%)	
	사무직	-	16명(2.7%)	88명(21.3%)	
	서비스직	-	2명(0.3%)	36명(8.7%)	
	전업주부	-	2명(0.3%)	33명(8.0%)	
	기타	-	-	18명(4.2%)	
	무직	-	1명(0.2%)	10명(2.4%)	
인터넷 사용기간	1년 미만	1명(0.1%)	3명(0.5%)	-	1,664명(95.2%) 무응답 33명(4.8%)
	1~3년 미만	13명(1.9%)	2명(0.3%)	2명(0.5%)	
	3~5년 미만	51명(7.4%)	8명(1.4%)	5명(1.2%)	
	5~7년 미만	158명(22.8%)	23명(3.9%)	15명(3.6%)	
	7년 이상	458명(66.1%)	544명(92.2%)	386명(93.2%)	
인터넷 사용빈도	하루 중 수시	127명(18.3%)	384명(65.1%)	273명(65.9%)	1,668명(95.3%) 무응답 31명(4.7%)
	하루 1회 이상	259명(37.4%)	161명(27.3%)	91명(22.0%)	
	2~3일 1회 이상	171명(24.7%)	32명(5.4%)	28명(6.8%)	
	1주일 1회 이상	114명(16.5%)	4명(0.7%)	15명(3.6%)	
	한달 1회 이상	9명(1.3%)	-	2명(0.5%)	
인터넷 사용시간	0~1시간 미만	167명(24.1%)	52명(8.8%)	74명(17.9%)	1,664명(95.2%) 무응답 33명(4.8%)
	1~3시간 미만	391명(56.4%)	285명(48.3%)	169명(40.8%)	
	3~5시간 미만	82명(11.8%)	133명(22.5%)	76명(18.4%)	
	5~7시간 미만	20명(2.9%)	56명(9.5%)	42명(10.1%)	
	7~9시간 미만	8명(1.2%)	34명(5.8%)	33명(8.0%)	
	9시간 이상	7명(1.0%)	19명(3.2%)	15명(3.6%)	
가족 접촉비율	온라인	15.02%(SD=23.02)	19.15%(SD=24.31)	20.23%(SD=23.90)	1,670명(97.3%) 무응답 27명(4.1%)
	오프라인	84.36%(SD=27.31)	80.29%(SD=25.04)	77.84%(SD=26.00)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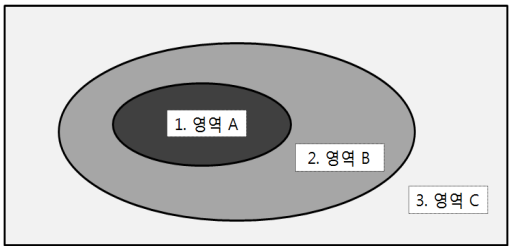

그림 2. 대인관계 도식

of online communication) 하위척도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타인과의 자기개방에서 대인관계영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Zhou, Sornette, Hill과 Dunbar(2005)는 지지집단(support group), 동감집단(sympathy group), 능동 네트워크(active network)의 3개 네트워크 영역으로 구분하여 관계의 강도와 친밀도를 탐색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지집단, 동감집단, 능동네트워크의 영역을 친밀도에 따라 편의상 A(가까운 대상), B(조금 가까운 대상), C(단순 지인) 그룹으로 명명하고 그림 2와 같이 도식화하였다(집단 간 친밀감의 차이, F=1844.83, p<.01).

본 연구에서 자기개방척도는 관심 폭 4개 문항(예, '다양한 주제를 쉽게 이야기한다')과 관계의 깊이 5개 문항(예, '비밀을 쉽게 이야기한다')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리커트식 4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온라인 자기개방은 A영역에서 Cronbach's α=.88, B영역에서 Cronbach's α=.89, C영역에서 Cronbach's α=.91이었으며, 오프라인 자기개방은 A영역에서 Cronbach's α=.85, B영역에서 Cronbach's α=.86, C영역에서 Cronbach's α=.89의 신뢰도를 보였다.

가족접촉빈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족접촉빈도 문항은 가족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어느 정도 자주 접촉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가족들과 온라인에서 대략 얼마나 자주 접촉합니까?', '가족들과 오프라인에서 대략 얼마나 자주 접촉합니까?')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응답자는 가족과의 일상적인 대화를 포함한 물리적 접촉빈도를 수시로, 하루에 1-2번, 일주일에 1-2번, 한 달에 1-2번, 일 년에 1-2번, 접촉하지 않는다로 답하였다. 주로 접촉하는 온라인 가족접촉매체로는 (상대의 반응에 관계없이 자신의 생각을 실시간 즉시 공개하는) 트위터와 미투데이(M=2.27, SD=2.24), (공동 관심사나 흥미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온라인 카페나 동호회(M=2.24, SD=2.04),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만 지인 중심의 프로필기반서비스) 페이스북과 링크나우(M=2.10, SD=1,95), (개방형 SNS) 블로그, 마이스페이스와 미니홈피(M=2.03, SD=1.62), (상호대화가 가능한) 메신저, 카카오톡과 버디버디(M=1.29, SD=2.79)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접촉매체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관계의 질

Furman과 Buhrmester(1985)가 개발한 관계질 척도를 한종혜(1994)가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 중 친밀감 하위척도 3개 문항('가족에게 나에 대한 일에 대해 얼마나 말합니까?', '가족과 내 비밀이나 개인적인 느낌을 얼마나 서로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일을 얼마나 이야기합니까?')을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의 질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가족관계의 질 척도는 리커트식 4점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α=.75였다.

www.kci.go.kr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8.0과 AMOS 20.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가설모형을 분석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분포의 정상성을 알아보기 위해,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분석하였고, 변인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AMOS 20.0 통계프로그램 최대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은 연구가설모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외변인들, 즉 연령, 성별, 학력, 경제수준, 인터넷 이용기간, 사용빈도 및 사용시간 등을 통제한 후 모형을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시, 잠재변인에 해당하는 측정변인의 수가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문항꾸러미기법(Item parceling)을 사용하여 각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 변수를 조정하였다(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Kline(2005)과 홍세희(2000)가 제안한 절대 적합도 지수 χ^2 값, RMSEA와 상대 적합도 지수 CFI, TLI, NFI를 참고하였다.

셋째, 회귀분석의 매개변인효과는 Baron과 Kenny(1986)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Sobel(1986)이 개발한 표준오차 추정치에 근거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Sobel 검증은 하나의 매개변인만 포함된 모형의 간접효과에 대한 비표준화 추정치를 직접 계산할 수 있는 유용한 통계검증법 중 하나다(Baron & Kenny, 1986). 본 연구의 결측치는 연구가설모형 검증 전에 변인들에 대한 무응답결측치를 통계적으로 제어한 후, 연구가설모형 분석 시 Arbuckle(1996)이 제안한 AMOS 통계프로그램의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를 활용하여 처리하였다.

연구결과

연구가설 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관련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살펴본 결과,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은 각각 3과 10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분포의 정상성(DeCarlo, 1997)을 가정할 수 있었다(표 2 하단).

표 2 상단에서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평집단주의는 .11로 A영역의 온라인 자기개방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수직개인주의는 .08, 수직집단주의는 .09, 수평집단주의는 .10으로 B영역의 온라인 자기개방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수직개인주의는 .06으로 C영역의 온라인 자기개방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문화적 가치와 오프라인 대인관계 자기개방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수평개인주의는 .16, 수직집단주의는 .10, 수평집단주의는 .25로 오프라인 A영역 자기개방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수직개인주의는 .05, 수평개인주의는 .08, 수직집단주의는 .11, 수평집단주의는 .15로 오프라인 B영역 자기개방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수직개인주의는 .05, 수평개인주의는 .05, 수직집단주의는 .09, 수평집단주의는 .08로 오프라인 C영역 자기개방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www.kci.go.kr

표 2. 가족의사소통 측정변인들의 상관,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개인주의-집단주의				대인관계 자기개방						가족접촉빈도		가족 관계의 질
							온라인			오프라인					
			수직개인	수평개인	수직집단	수평집단	A영역	B영역	C영역	A영역	B영역	C영역	온라인	오프라인	
개인주의 vs. 집단주의		수직개인	1.00												
		수평개인	.29**	1.00											
		수직집단	.37**	.32**	1.00										
		수평집단	.21**	.42**	.41**	1.00									
대인관계 자기개방	온라인	A영역	-.03	.02	.05	.11**	1.00								
		B영역	.08**	.03	.09**	.10**	.47**	1.00							
		C영역	.06*	-.01	.04	.03	.34**	.53**	1.00						
	오프라인	A영역	.02	.16**	.10**	.25**	.29**	.12**	.05	1.00					
		B영역	.05*	.08**	.11**	.15**	.17**	.48**	.29**	.47**	1.00				
		C영역	.05*	.05*	.09**	.08**	.18**	.36**	.65**	.34**	.53**	1.00			
가족접촉빈도		온라인	.02	.06*	-.04	.01	.15**	.09*	.08*	.15**	.09*	.08*	1.00		
		오프라인	.02	-.01	.06*	-.04	.03	.01	-.02	.05	.02	.01	.07**	1.00	
가족관계의 질			.03	.06*	.18**	.10**	.07**	.02	.01	.07**	.02	.01	.09**	.09**	1.00
평 균			25.20	28.17	26.39	29.19	5.00	4.41	3.66	5.00	4.41	3.66	3.63	3.63	8.08
표준편차			6.05	6.25	6.04	5.70	1.72	1.55	1.56	1.72	1.55	1.56	1.74	1.74	3.04
왜 도			-1.12	-1.60	-1.66	-1.88	-.40	-.29	.13	-.40	-.29	.13	.12	.12	2.39
첨 도			3.82	6.27	5.90	7.93	.21	.35	.05	.21	.35	.05	-1.25	-1.25	8.98

* $p<.05$, ** $p<.01$

www.kci.go.kr

개인주의-집단주의와 가족접촉빈도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문화적 가치 중 수평개인주의만이 .06으로 온라인 가족접촉빈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하지만 수직집단주의는 .06으로 오프라인 가족접촉빈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대인관계 자기개방과 가족접촉빈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온라인 A영역, B영역, C영역의 자기개방 모두 .15, .09, .08로 온라인 가족접촉빈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하지만 오프라인 A영역, B영역, C영역 자기개방은 모두 오프라인 가족접촉빈도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개인주의-집단주의, 대인관계 자기개방, 가족접촉빈도와 가족관계의 질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평개인주의는 .06, 수직집단주의는 .18, 수평집단주의는 .10으로 가족관계의 질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온라인 자기개방은 A영역의 온라인 자기개방만이 .07로 가족관계의 질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온라인 가족접촉빈도는 .09로 가족관계의 질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에 오프라인 자기개방은 A영역, B영역, C영역 모두 .14, .09, .05로 각각 가족관계의 질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오프라인 가족접촉은 .10으로 가족관계의 질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모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령, 성별, 학력, 경제수준, 인터넷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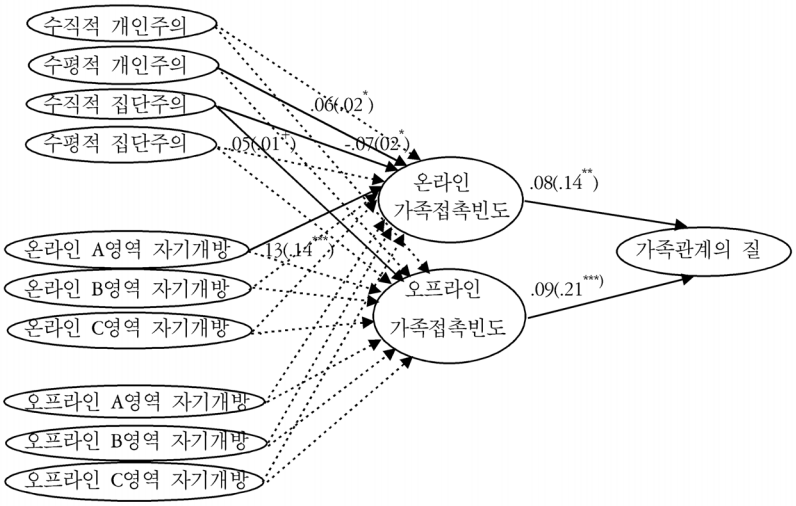

그림 3. 연구가설모형 검증

(+ p<.05, * p<.05, *** p<.001, 표준화계수(비표준화계수))

표 3. 연구가설모형 적합도

χ^2	RMSEA	CFI	TLI	NFI
118.59(df=97), p=.00	.06	.97	.89	.97

www.kci.go.kr

기간, 사용빈도 및 사용시간 등의 가외변인 제약을 가한 후, 온라인 가족의사소통 연구가설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가설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모형적합도 지수는 CFI와 NFI가 모두 .97로 1에 가깝고, RMSEA가 .06으로 .08보다 적은 수용가능한 범위에 있었다. 하지만 χ^2값이 영가설을 기각하였고, TLI가 .89로 .95를 넘지 못함으로써 연구가설모형이 매우 좋은 모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쟁대안모델로 자기개방이 가족관계의 질로 가는 경로를 추가하여 부분매개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는 자기개방과 관계의 질 간에 유의한 관련이 있다(DeVito, 2005; Joinson, 2001; 박용분, 2002)는 보고에 근거한 것이다. 먼저, 온라인과 오프라인 자기개방이 가족관계의 질로 가는 경로만을 설정하고 나머지 인과관계는 모두 설정하지 않은 대안모형 1과 연구가설모형에 추가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자기개방이 가족관계의 질로 가는 경로를 추가한 대안모형 2를 비교하였다. 표 4에서 대안모형 1과 연구가설모형은 nested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χ^2값 비교를 통한 직접적인 모형의 비교를 실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간결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여 비교한 결과, 연구가설모형의 GFI=.97, PNFI=.21, PCFI=.21로 대안모형 1보다 높았고, AIC=292.59로 대안모형 1보다 낮게 나타나 연구가설모형이 대안모형 1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모형 2를 분석한 결과, 주요 적합도 지수는 $\chi^2(91)=73.90$, p=.000, GFI=.98, PNFI=.30, PCFI=.30, AIC=259.90이었다. 대안모형 2와 연구가설모형은 nested 관계에 있기 때문에, χ^2차이검증을 통해 두 모형을 직접 비교할 수 있었다. 표 5에서 대안모형 2는 χ^2값이 44.69로 감소하였고, 자

표 4. 연구가설 모형과 대안모형 1의 적합도 지수 비교

구분	적합도 지수	연구가설모형	대안모형 1	비교가능여부
χ^2 적합도	χ^2	118.59	154.41	비교 불가능
	df	97	104	
	p	.000	.000	
간결 적합도 지수	GFI	.97	.90	비교 가능
	PNFI	.21	.14	
	PCFI	.21	.14	
	AIC	292.59	314.41	

표 5 연구가설 모형과 대안모형 2의 적합도 지수 비교

구분	적합도 지수	연구가설모형	대안모형 2	차이	비교가능여부
χ^2 적합도	χ^2	118.59	73.90	44.69	비교 가능
	df	97	91	6	
	p	.000	.000	p<.05	

www.kci.go.kr

표 6. 수정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RMSEA	CFI	TLI	NFI
수정모형	63.30(*df*=91), p=.00	.05	.99	.90	.99

유도가 6 낮아졌다. 자유도가 1 감소함에 따라 χ^2값은 3.84 이상 감소해야 한다. 대안모형 2는 자유도가 6 낮아졌기 때문에, χ^2값은 12.56 이상 감소해야 우수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Delta\chi^2$=55.29>$\chi^2_{.05}$(6)=12.59, Δdf=6), 본 연구에서는 대안모형 2가 연구가설모형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채택된 대안모형 2를 수정지수를 이용하여 χ^2값의 감소를 통해 모형적합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온라인 가족접촉빈도와 오프라인 가족접촉빈도간의 측정오차간의 제약을 풀어 두 오차항의 공변관계를 설정해줌으로써 χ^2값을 10.51만큼 감소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가설모형과 비교해서, 표 6의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값이 감소했고, 이는 불량도 지수(badness-of-fit)가 수정모형보다 연구가설모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또한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는 지수(NFI, .97→.99) 외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지수(CFI, .97→.99; TLI, .89→.90)와 간명성을 고려하는 지수(RMSEA, .06→.05) 모두에서도 수정모형이 더 좋은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채택된 그림 4 수정모형에서는 새로운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되었다. 온라인에서 단순 지인과 자기개방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가족관계의 질이 낮았고, β=.09, p<.05, 오프라인에서는 A(β=.10, p<.001), B(β=.05, p<.10), C(β=.07, p<.05)영역에서 모두 자기 개방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가족관계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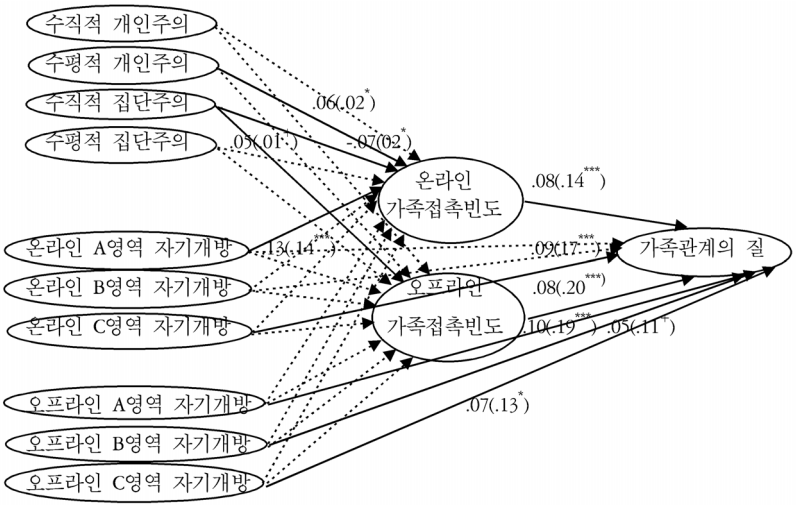

그림 4. 수정모형 검증

(+ p<.05, * p<.05, *** p<.001, 표준화계수(비표준화계수))

www.kci.go.kr

표 7. 수정모형 최대우도 모수 추정치

모수	B	SE	β	t	p
수직적 개인주의 → 온라인 가족접촉빈도	.01	.01	.02	.68	.50
수평적 개인주의 → 온라인 가족접촉빈도	.02	.01	.07	2.41	.02
수직적 집단주의 → 온라인 가족접촉빈도	-.02	.01	-.06	-2.31	.02
수평적 집단주의 → 온라인 가족접촉빈도	.01	.01	.02	.84	.40
수직적 개인주의 → 오프라인 가족접촉빈도	.00	.01	.00	.16	.88
수평적 개인주의 → 오프라인 가족접촉빈도	.01	.01	.03	1.06	.29
수직적 집단주의 → 오프라인 가족접촉빈도	.01	.01	.05	1.82	.07
수평적 집단주의 → 오프라인 가족접촉빈도	.01	.01	.02	.72	.47
온라인 자기개방 A영역 → 온라인 가족접촉빈도	.14	.03	.13	4.89	***
온라인 자기개방 B영역 → 온라인 가족접촉빈도	.01	.03	.01	.35	.73
온라인 자기개방 C영역 → 온라인 가족접촉빈도	.02	.03	.02	.75	.45
오프라인 자기개방 A영역 →오프라인 가족접촉빈도	.03	.02	.04	1.57	.12
오프라인 자기개방 B영역 →오프라인 가족접촉빈도	.01	.03	.01	.25	.81
오프라인 자기개방 C영역 →오프라인 가족접촉빈도	.02	.02	.02	.79	.43
온라인 가족접촉빈도 → 가족관계의 질	.14	.04	.07	3.23	.00
오프라인 가족접촉빈도 → 가족관계의 질	.21	.06	.09	3.78	***
온라인 자기개방 A영역 → 가족관계의 질	.08	.05	.05	1.62	.10
온라인 자기개방 B영역 → 가족관계의 질	.05	.07	-.03	-.79	.43
온라인 자기개방 C영역 → 가족관계의 질	-.17	.07	-.09	-2.51	.01
오프라인 자기개방 A영역 → 가족관계의 질	.19	.05	.10	3.68	***
오프라인 자기개방 B영역 → 가족관계의 질	.11	.06	.05	1.77	.07
오프라인 자기개방 C영역 → 가족관계의 질	.13	.06	.07	2.15	.03

수정모형 경로계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문화적 가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와 수직적 집단주의가 온라인 가족접촉빈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각각 .07과 -.06으로 추정되었고, 온라인 A영역(가까운 대상) 자기개방이 온라인 가족접촉빈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13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자기개방이 통제되었을 때, 수평적 개인주의의 수준이 평균보다 1 표준편차만큼 높으면 온라인 가족접촉빈도의 수준이 평균보다 약 .07 표준편차만큼 높을 것이고, 수직적 집단주의는 약 .06만큼 낮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문화적 가치와 오프라인 자기개방을 통제했을 때, 온라인 A영역(가까운 대상) 자기개방수준이 평균보다 1 표준편차만큼 높으면 온라인 가족접촉빈도의 수준이 평균보다 약 .13 표준편차만큼 높아질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문화적 가치 중 수직적 집단주의만이

www.kci.go.kr

오프라인 가족접촉빈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의 표준화 경로계수가 .05로 추정되었다.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자기개방이 통제되었을 때, 수직적 집단주의의 수준이 평균보다 1 표준편차만큼 높으면 오프라인 가족접촉빈도의 수준이 평균보다 약 .05 표준편차만큼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오프라인 자기개방은 A, B, C영역 모두 오프라인 가족접촉빈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의 비표준화 경로계수는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온라인 가족접촉빈도와 오프라인 가족접촉빈도가 가족관계의 질로 가는 경로의 직접효과의 비표준화 계수는 각각 .14, .21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또한 온라인 자기개방 C영역(단순 지인)이 가족관계의 질로 가는 경로의 직접효과의 비표준화 계수는 -.17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 오프라인 자기개방 A, B, C영역이 가족관계의 질로 가는 경로의 직접효과의 비표준화 계수는 각각 19, .11, .13로 유의수준 .001, .10,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Sobel test를 통해 그림 3 연구가설모형의 매개효과를 검증해본 결과, 수평적 개인주의와 수직적 집단주의 모두 가족관계의 질 간의 관계에서 온라인 가족접촉빈도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Z=1.74$, $p<.10$; $Z=1.74$, $p<.10$. 하지만 수직적 집단주의와 가족관계의 질 간의 관계에서 오프라인 가족접촉빈도는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Z=.96$, $p=.34$. 반면에, 온라인에서 가까운 대상과의 자기개방과 가족관계의 질 간의 관계에서 온라인 가족접촉빈도는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Z=2.8$, $p<.01$.

논 의

본 연구는 SNS를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10대에서 30대까지 1,69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족의사소통에서 문화적 가치와 대인관계 자기개방이 가족접촉빈도와 가족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봄으로써, 디지털 시대 변화하고 있는 가족의사소통체계의 패러다임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온라인과 오프라인 자기개방과 가족관계의 질 간의 직접경로만 추가)을 비교해본 결과, 본 연구에서는 부분매개모형이 더 좋은 모형임이 판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모형을 수정하여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온라인에서 가족들과 많은 접촉을 통해 가족관계의 질을 증진시켰다. 반면에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오히려 온라인 가족접촉빈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온라인 가족의사소통과 달리, 수직적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오프라인에서 가족들과의 많은 만남을 통해서 가족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족접촉빈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1을 지지하였다. 하지만 친밀한 타인들과 자기개방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온라인 가족접촉을 통해 가족관계의 질을 증진시키지만, 오프라인에서 대인관계 자기개방수준은 오프라인 가족접촉빈도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즉, 가설 2를 지지하였다. 이처럼 문화적 가치와 대인관계 자기개방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가족교류에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가족접촉빈도는 모두 가족관계의 질과

www.kci.go.kr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가설 3을 지지하였다.

아울러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족의사소통체계에 대한 수정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개인의 문화적 가치와 온라인 자기개방은 온라인에서만 가족과의 접촉을 촉진시켜 가족관계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가설 4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따라서 Sobel 검증을 통해 가족접촉빈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첫째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온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족과 많은 접촉을 하였고, 이는 가족관계의 질을 촉진시켰다. 둘째, 수직적 집단주의 경향이 강한 사람은 오히려 가족들과 온라인 접촉을 하지 않았으며, 가족관계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온라인 대인관계 영역 중 정서적 지지집단에서 자기노출을 잘하는 사람은 가족들과 온라인에서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였고, 이는 가족관계의 질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넷째, 수직적 집단주의적 경향이 강한 사람은 오프라인에서 가족과의 빈번한 접촉이 오히려 가족관계의 질을 촉진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족의사소통의 차이는 자기개방과 가족관계의 질 간의 관계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온라인에서 낯선 타인과 자기개방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가족과의 친밀감은 낮았다. 반면에 오프라인에서 가까운 사람이나 낯선 사람에게 자신을 잘 드러내는 사람일수록 가족친밀감이 높았다. 이는 익명성 보장이라는 온라인 공간의 특성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소속감과 유대감을 강조하는 가족문화에서 온라인 공간이 개인에게 유일한 사적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폐쇄적으로 가상현실 속에서 낯선 타인과 자신의 세계를 확장해나가는 사람일수록 가족과의 관계는 소원해질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문화변동이론에 따라 미국과 일본의 문화차이를 비교한 Hamamura(2011)는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유산에 따른 문화 간 차이를 보일지라도, 문화적 가치는 점차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변모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였다. 이런 문화적 변동은 문화 간 차이뿐만 아니라 특정문화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Yamawaki, 2012), 특히 동아시아권에서의 개인주의적 문화가치는 점점 두드러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수직적 집단주의가 오프라인 가족의사소통과 유의한 관계가 있고, 수평적 개인주의가 온라인 가족의사소통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개인의 문화적 가치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족교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최근 중고령자의 인터넷 이용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10대에서 30대까지 연구대상자만을 표본으로 사용하여 연령대별 비교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 세대일수록 개인주의적 가치가 팽배하다는 선행연구결과(Park, Twenge, & Greenfield, 2014, Twenge, 2001a; Reynolds, Stewart, MacDonald, & Sischo, 2006; Twenge, 2001b; Twenge, 2006)를 지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90% 이상의 인터넷 이용을 보이고 있는 30대 이하 젊은 세대와 50, 60대 중고령층의 문화적 가치가 가족교류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대별로 좀 더 체계적으로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수직적 집단주의가 오프라인 가족의사소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온라인 가족의사소통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www.kci.go.kr

아직도 한국의 가족체계에는 서열성이 존재하고, 이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하 위계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온라인 대인관계 특성이 온라인 가족의사소통에서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는 것은 최근 인터넷시대에 살고 있는 한국의 가족의사소통체계도 점차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해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의 가족의사소통체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던 것에 반해, 최근 변화하는 대인관계 패러다임을 고려하여 온라인 가족의사소통체계를 함께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최근 우리 사회가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변모하는데 따른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족의사소통체계를 비교해보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강한 가족주의에서 바람직한 개인주의로 변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가족의사소통의 패러다임 변화를 초래하고 있을지라도, 가족은 다른 집단과 달리 서열성이 강하고 위계질서가 명료한 집단(부모자녀관계)이기 때문에 온라인 가족관계가 다른 온라인 대인관계처럼 빠른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가족관계 발전에 있어서 자기개방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친교관계는 개인 상호간에 더 많은 개인정보가 오고갈 때 가능하므로(Altman & Taylor, 1973), 자기개방은 상호간에 호감을 촉진시키고 상대의 사회적 지위나 성격특성에 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킴으로써 대인관계에 도움을 준다(Berger & Bradac, 1982).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온라인 자기개방 A영역(가까운 대상)에서만 유의한 결과가 나타남으로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정서적 교류 이전의 자기개방이 더 쉽게 이루어진다는 기존연구(Collins & Miller, 1994; McKenna & Bargh, 1998)와는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가족이라는 고유한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본 결과일 수 있지만, A 영역 이외, B, C 대인관계영역에서 온라인 자기개방에 대한 체계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온라인상의 시 · 청각적 단서의 결여는 가족원들에게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나를 더 잘 노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최근 풍부하고 다양해진 온라인 매체를 통한 온라인 가족의사소통은 가족원들의 애정표현이나 친밀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본 연구의 표집은 10대(99.9%), 20대(99.9%), 30대(99.3%)의 젊은 층에서 거의 대부분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는 2010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에 근거하여 SNS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10대부터 30대까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하지만 표본표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대와 30대는 전국 비례할당 표본표집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대는 서울시, 충청도, 전라도 3개 지역만을 선별하여 임의표본 표집을 실시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연령분포에 있어서도 10대의 경우 4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15세 이상 고등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편중된 표집을 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현재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변모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문화정체감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온

www.kci.go.kr

라인과 오프라인 가족의사소통체계를 살펴본 것이 아니라는 제한점을 지닌다. 임평규(2001)는 온라인에서의 자기표현과 개인적 특성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온라인 환경이 현실의 환경과는 다른 행동의 맥락이 작용할 수 있으나, 온라인이 현실세계와 다른 공간이라고 해서, 인간행동이 현실에서의 자기특성을 완전히 벗어난 채 새로운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오프라인의 일상들은 온라인 속에서 유통되고, 또한 거대한 문화로 다시금 오프라인으로 되살아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문화정체감 혼란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탐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사소통의 한 형태로서 가족접촉빈도만을 고려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가족상호작용을 탐색할 때는 가족과의 대화시간과 가족의사소통유형과 같은 변인들이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서 이들 변인들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와 같은 문화적 가치와 자기개방 외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족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가 가족이라는 집단을 대상으로 자신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족의사소통을 탐색한 것이다. 따라서 가족구성원 개개인과의 의사소통유형을 세밀하게 관찰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분명 가족원 중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 차이가 있을 것이고, 형제자매와의 의사소통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한 가족원들 사이에서도 친밀도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류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에 인터넷이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오늘날 온라인 가족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후속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참고문헌

구재선, 김의철 (2006). 심리적 특징, 생활경험, 행복과의 통합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4), 1-18.

김교헌, 태관식 (2001). 자기노출이 청소년의 컴퓨터중독 개선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6(1), 177-194.

김기범 (1996). 대인관계 속에서의 도덕성과 내집단-외집단 구별: 문화비교 분석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남순현 (2001). 가족의 정서체계 역동성에 관한 연구: 성인자녀가족과 3세대 가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남순현 (2008). 청소년 모방자살의 심리적 기제에 관한 탐색. 인문사회과학연구, 19(1), 51-87.

남순현 (2012). 한국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4), 949-975.

박용분 (2002). 의사소통증진을 위한 가족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2010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201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송성자 (1997).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문화비교와 한국가족치료 접근 전략. 한국가족치료

www.kci.go.kr

학회지, 5, 1-26.

임재명, 유지열, 장세정, 이정환, 유재민 (2013). 2013년 모바일인터넷이용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임평규 (2001). 현실과 사이버의 맥락에 따른 자기노출의 차이: 성격특성과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수지, 김수영, Erika Kobayashi (2014). 연령집단별 문화성향과 공동체의식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2), 1-28.

조긍호 (1996). 문화유형과 타인이해 양상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5(1), 104-139

한종혜 (1994).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역량 지각 및 자아 존중감. 경희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한주리, 허경호 (2005). 가족 의사소통 패턴과 자녀의 자아존중감, 자아노출, 내적 통제성 및 의사소통능력과의 관계. 한국언론학보, 49(5), 202～227.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Arbuckle, J. L. (1996). Full information estimation in the presence of incomplete data. In G. A. Marcoulides & R. E. Schmacker (Eds.),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and techniqu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ltman, I. & Taylor, D. (1973). *Social penetration: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Berger, C. R., & Bradeac, J. J. (1982). *Language and social knowledge: uncertainty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Collins, N. L., & Miller, L. C. (1994). Self-disclosure and liking: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6,* 457-475.

DeCarlo, L. T. (1997). On the meaning and use of kurtosis. *Psychological Methods, 2,* 292-307.

DeVito, J. A. (2005). *Essentials of human communication* (3rd ed). Boston: Pearson Education, Inc.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016-1024.

Gilbert, S. (1976). Self-disclosure, intimacy and communication in families. *The Family Coordinator, July,* 221-231.

Hamamura, T. (2011). Are cultures becoming individualistic? A cross-temporal comparison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6*(1), 3-24.

Hofstede, G. (1991). *Culture and organization: Software of the mind.* London, England: McGraw-Hill.

Joinson, A. N. (2001). Self-disclosure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The role of self-awareness and visual anonym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1,* 177-192.

Kerr, M., & Stattin, H. (2003). Parenting of adolescence: Action or reaction. In A. C. Crouter & A. Booth (Eds.), *Children's influence*

www.kci.go.kr

on family dynamics: The neglected side of family relationships (pp.121-151). New York: Erlbaum.

Kerr, M., Stattin, H., & Burk, W. (2010). Reinterpretation of parental monitoring in longitudinal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0*(1), 39-64.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Guilford Press.

Livingstone, S. (2006). Children's privacy online: Experimenting with boundaries within and beyond the family. In R. Kraut, M. Brynin, & S. Kiesler (Eds.), *Computers, phones, and the internet* (p.128-144). Oxford University Press.

Marshall, T. C. (2008). Individualism-collectivism cultural differences in intimacy: The Influence of gender-role ideolog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5*(1), 143-168.

McKenna, K. Y. A., & Bargh. J. A. (1998). Coming out in the age of Internet: Identity "Demarginaliation" through virtual group particip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681-694.

Omarzu, J. (2000). A disclosure decision model: Determining how and when individuals will self-disclos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4*(2), 174-185.

Park, H., Twenge, J. M., & Greenfield, P. M. (2014). The great recession: implications for adolescent values and behavior.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5*(3), 310-318.

Peetz, D. (2010). Are individualistic attitudes killing collectivism? *European Review of Labour and Research, 16*(3), 383-398.

Peter, J., & Valkenburg, P. M (2006). Research note: Individual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internet communication.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21,* 213-226.

Posey, C., Lowry, P. B., Roberts, T. L., & Ellis, T. S. (2010). Proposing the online community self-disclosure model: the case of working professionals in France and the U.K. who use online communities.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s System, 19,* 181-195.

Quek, K. M., & Fitzpatrick, J. (2013). Cultural values, self-disclosure, and conflict tactics as predictors of marital satisfaction among Singaporean husbands and wives. *The Family Journal, 21*(2), 208-216.

Raval, V. V. (2013). Fight or flight? Competing discours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runaway boy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India.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30*(4), 410-429.

Reynolds, J., Stewart, M., MacDonald, R., & Sischo, L. (2006). Have adolescents become too ambitious? High school seniors'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plans, 1976 to 2000. *Social Problems, 53,* 186-206.

Russell, D. W., Kahn, J. H.,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Salafia, B. E. H, Gondoli, D. M., & Grundy, A. M. (2009). The longitudinal interplay of maternal warmth and adolescents' self disclosure in predicting maternal knowledg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9,* 654-668.

Satir, V., Gomori, M., & Gerber, J. (2006). 사티

www.kci.go.kr

어모델. (한국 버지니아 사티어 연구회 역, 원제: *The Satir model: family therapy and beyond*). 서울: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원저 1991년 발행).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P. S., & Gelfand, M. J.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3), 240-275.

Sobel, M. E. (1986). Some new results on indirect effects and their standard errors in covariance structure models. In N. B. Tuma (Eds.), *Sociological methodology* (p.159-186). San Francisco: Jossey-Bass.

Stattin, H., & Kerr, M. (2000). Parental monitoring: A reinterpretation. *Child Development, 71,* 1072-1085.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Triandis, H. C., & Gelfand, M. J. (1998).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18-128.

Twenge, J. M. (2001a). Changes in women's assertiveness in response to status and roles: A cross-temporal meta-analysis, 1931-1993.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133-145.

Twenge, J. M. (2001b). Birth cohort changes in extraversion: A cross-temporal meta-analysis, 1966-1993.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735-748.

Twenge, J. M. (2006). *Generation me: Why today's young Americans are more confident, assertive, entitled, and more miserable than ever before.* New York, NY: Free Press.

Twenge, J. M., Campbell, W. K., & Freeman, E. C. (2012). Generational differences in young adults' life goals, concern for others, and civic orientation, 1966-2009.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 1045-1062.

Uhls, Y. T., & Greenfield, P. M. (2011). The rise of fame: An historical content analysis. Cyberpsychology: *Journal of Psychosocial Research on Cyberspace, 5,* 1.

Yamawaki, N. (2012). Within-culture variations of collectivism in Japa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3*(8), 1191-1204.

Zhou, W. X., Sornette, D., Hill, R. A., & Dunbar, R. I. M. (2005). Discrete hierarchical organization of social group sizes.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272,* 439-444.

1차원고접수 : 2014. 08. 19.
수정원고접수 : 2015. 03. 12.
최종게재결정 : 2015. 03. 31.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015, Vol. 34, No. 2, 353-374

A comparative study of influences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and self-disclosures on family intimacy in on-offline family communication system

Soonhyeon Nam
Dept.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Junghye Kwon
Dep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of family communication systems within the interpersonal paradigm of the digital era. In order to achieve this, the study conducted comparable analyses on the influences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tendencies and the online and offline self-disclosures in terms of family intimacy levels. The demography of the 1,697 research subjects ranged from teenagers to people in their thirties, who had been identified as active SNS users from December 2011 to March 2012 by the nationwide population and random sample surveys. The results showed that horizontal individualism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the frequency of online family interaction, whereas vertical collectivism has no meaningful correlation with the online family interaction frequency. In terms of online self-disclosures, only the Domain A (intimate subject) had a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the online family interaction frequency and the online family interaction frequenc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s. On the other hand, in terms of offline family interactions, the vertical collectivism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offline family interaction frequency. In terms of offline self-disclosures, all variables regarding offline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d no meaningful impact on the offline family interaction frequency. The research results also showed that individual cultural values and online self-disclosure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online family interaction frequency as mediators. In addition, the Domain C (simple acquaintance) of online self-disclosure and Domain A, B, and C of offline self-disclosure had directly influences with the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 The study results comprehensively verified that active online self-disclosure improved the frequency of online family interaction, thereby increased the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s in the society where horizontal individualism was becoming more prevalent than vertical collectivism. Therefore, the study indicated that a paradigm of family communication could also be transformed from offline to online.

Key words :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Collectivism, Self-disclosure, online family communication system, quality of family relations, family interaction

www.kci.go.kr